

◆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행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추진

- \* ① 건강보험 지원: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감소 등을 감안한 건강보험 지원  
 ② 예산 지원: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추경으로 신속지원  
 ③ 손실 보상: 의료기관 손실 보상, 경영상 어려운 의료기관 용자지원

## I 건강보험 지원

◇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부담을 덜고, 코로나19 치료에 참여시 적정 보상토록 건강보험 종합적 지원

### ① [급여 지원] 건강보험 先지급\* 전국 확대 및 조기 지급

\* 先지급: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

- (先지급) 코로나19 확산 방지, 환자 치료 등 역할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 先지급' 확대 시행\*\*

\* (현행) 대구·경북 의료기관 先지급(54억원, 83개소)→ (확대) 전국 시행(3월)

- 전국 의료기관 대상으로,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의 90~100%\* 지급

\*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先지급

- (조기지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 12일 단축 (22일→ 10일, 2.28~)

\* (조기지급 현황) 3조 721억원(8만 9.402건) 지급 완료(3.13 기준)

## ② [치료 지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

- (음압격리병상) 중환자를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 인상 (3.20~)

\*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등

- (국민안심병원)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 지원 강화 (2.24~)

\* 호흡기외래진료(유형A), 호흡기입원병동·선별진료소 병행 운영(유형B)

- 감염예방관리료(20천원) 및 격리관리료\* 지원

\* 일반 격리 : 38~49천원, 음압 격리 : 126천원~164천원

-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16개소) 입소·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의료적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진료비\* 지원(3월 말~)

\* 입소자 초기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 지원

## ③ [행정기준 유예]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 (인력·시설 신고)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 되더라도 변경신고 유예, 종전(19.4분기) 인력·시설 적용\*(2.19~)

\* 간호사 수 대비 병상 비율에 따라 입원료 등 차등 지급(간호등급에 따른 차등)되나 동 조치로 인해 간호인력이 줄어들어도 종전 수가 적용 가능

- (의료기관 조사·평가)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 대응상황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평가\* 유예

\* 뇌·뇌혈관 MRI 집중 모니터링, 요양기관 기획조사,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 II 예산 지원

◇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 (예비비 등 1,591억원, 추경 정부안 1,463억원)

### ① 시설 설치·운영 지원 (1,051억원)

- (선별진료소 : 233억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 지원(4월~)
  - \* 컨테이너, 텐트·천막, 이동형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X-ray, 개인보호장구 등
  - ▲1~2월 소요비용 지급(1차, 4.1), ▲3월 소요비용 지급(4.4주)
- (감염병 전담병원: 390억원) 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기관(69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3월 말~)
  - \* 심전도기 등 장비, 공사비, 개인보호장구 등 소모품, 인건비 등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48억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중 의료기관(29개소)에 장비·운영비 지원(3.3주~)
-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 380억원) 중증환자·고위험군 치료 병상을 확충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비 및 장비비 지원(3월 말~)

### ②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 (540억원 + 추경) \* 추경 정부안 923억원

-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고글,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계속)
  - \* 보호복 D세트(레벨D 보호복, N95마스크, 고글, 장갑, 덧신) 86만개 지원(의료기관 등 56만개, 보건소 선별진료소 22만개, 소방방재청 등 8만개), 음압기 707대 지원

### ③ 인프라 확충 (추경)

- (음압병실 확충) 120 병상 추가 확충(198→318 병상) \* 정부안 420억 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 제주) 지정 추진
  - \* 정부안 120억 원

### Ⅲ | 의료기관 손실보상

◇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여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융자 지원 (예비비 3,500억원, 추경 정부안 7,500억원)

#### ①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 + 추경) \* 추경 정부안 3,500억원

○ (개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손실보상\*

- \*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

#### < 주요 손실보상 대상 기관 >

- (의료기관) 국가지정 치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
-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 코호트격리, 응급실폐쇄 등
- (의원·약국) 확진자 발생·경유 의원·약국 등

○ (조기 보상)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개산금\*\* 조기 지급(1,500~2,000억 원)

- \* 대구·경북 의료기관·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 \*\* 개산금 :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 (최종 보상)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최종 보상 추진, 손실 보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원

- \* 보건복지부 차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임태환) 공동위원장,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예방의학회, 법무공단 등 의료계·전문가 참여(총 14명)

#### ② 의료기관 융자지원 (추경) \* 추경 정부안 4,000억원

○ (개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

- \* (계획안)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 금리 2.15%,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융자한도 20억원(매출액 25% 이내)

○ (계획) 취급 금융기관 공모·선정(3월), 신청 접수(4월), 실행(5월)

**<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총괄표 >**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재정
<b>I. 건강보험 지원</b>			
급여 지원	건강보험 先지급 전국 확대	전체 의료기관	건강보험
	건강보험 조기 지급		
치료 지원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음압격리병상 설치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지원	국민안심병원 316개소	
	생활치료센터 입원에 준하여 진료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16개소	
행정기준 유예	시설·인력 변경신고 유예	전체 의료기관	
	의료기관 조사·평가 유예	전체 의료기관	
<b>II. 예산 지원</b>			
시설 설치 운영	선별진료소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370개소	233억 원 (일반회계)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69개소(3.16 기준)	390억 원 (일반회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지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29개소	48억 원 (일반회계)
	중증환자 치료 병상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의료기관	380억 원 (일반회계)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	보호복, 방역용마스크, 이동형음압기 등 지원	의료기관, 보건소, 소방방재청 등	540억 원 (일반회계) 923억 원 (추경 정부안)
추가 지원	음압병실 추가 확충	120병상	420억 원 (추경 정부안)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개 권역	120억 원 (추경 정부안)
<b>III. 손실 보상</b>			
의료기관 손실 보상	손실발생 의료기관, 약국 등에 보상	병원, 약국 등	7,000억 원 (예비비 3,500억 원 추경 정부안 3,500억 원)
의료기관 용자 지원	의료기관 대상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지원	용자신청 의료기관	4,000억 원 (추경 정부안)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및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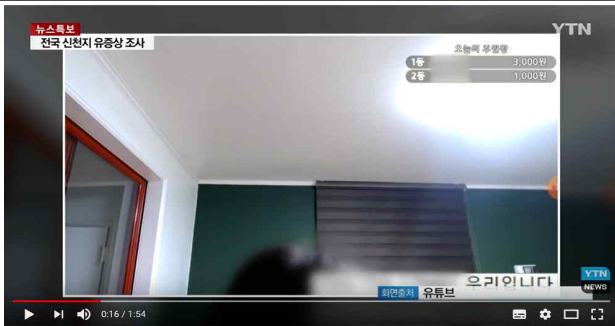
이러한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허위정보 등 주요 사례 >

#### <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 26.) >



코로나19 상담월에 '시X XX야'...물상식한 장난전화 / YTN

▲ 1339에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유튜브 영상 게재(2. 26.)

→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경찰청 수사 의뢰

#### <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등 게시(3. 1.) >

중국 유학생들에게 제공된 도시락 문재인 이름과 청와대문양이 그려져있다 대구에 독송골고 달려간 우리의료진들은 심지어 숙소마저 자비로 해결하라고 방호복 대신 가운을 입으라 권한다  
우리 의료진들에겐 너무고마워 어쩔 줄 모르며.. 대구시장상인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줬다한다ㅠ



▲ (도시락 사진) 중국 유학생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제공된 도시락

▲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 의료진 숙소 등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소 등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

→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가능,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개 지원 (3. 1. 기준)